

특목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선발... 일반고 다자녀 기준 완화

부산교육청 2023 고입전형 계획

특목고·자사고 정원 20%
사회 통합전형으로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입전형 주요 내용과 학교 유형별 진로·진학 정보를 담은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기 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와 후기 학교(▲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학교장전형 일반고 ▲평준화적용 일반고)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는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는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국가보훈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3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상자 자녀 가운데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외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전형에 앞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고려해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평준화적용 일반고는 '광역학군과 지역학군에 대한 1~4지망 선 복수지원 후 추천배정' 및 '주소지 정보에 의

한 통학권 내 지리정보 배정' 방식으로 컴퓨터의 무작위 추첨 배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시 다자녀의 기준을 네 자녀에서 세 자녀로 완화, 적용하고 둘째 자녀부터 희망에 따라 평준화적용 일반고 1, 2학년에 재학 중인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교에 배정한다.

평준화적용 일반고 배정 시 기존 쌍생아에만 적용되던 것을 한 가정에 같은 학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등 동일교 배정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도 봉사활동 기준 시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시간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5월 13일과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 연수'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에게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진학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숲치유 콘테스트 3개부문 수상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열린 2022 숲치유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유아숲교육, 3개 부문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콘테스트는 전남도 주관으로 코로나 시대 숲속 힐링을 확대하고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숲속 치유·휴양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3개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31명 중 현장시연을 통해 최종 수상자 13명이 선정됐다. 이중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유아숲교육 분야에서 우수상, 산림치유 분야 및 숲해설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66.8ha 숲에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심어 사계절 볼거리가 풍부하다. 산림휴양 명소로 알려져 지난해 2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전남=양수영 기자

밀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

밀양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 2343만 1730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52건 1231만 1470원(53%), 지방소득세 988건 928만 2640원(40%)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제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광주시, 겨울철 재난대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정부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4개월 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조치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폭설 대응 합동 훈련, 피해 최소화화 대시민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설로 광주 남구와 전남 화순군 경계지역인 철구재 터널입구 도로에 교통장애가 발생했을 때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것은 전국적인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지난해 최우수 선정으로 확보한 상급 특별교부세 5억원 전액을 ▲세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세설자재 확충과 제설장비 현대화 ▲상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팩 지원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등 겨울철 재난예방 사업에 재투자해 재난대책을 적극 추진한 것도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 농촌서 살아볼까”... 귀농사업 인기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형 운영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전라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기간 거주공간과 농촌·영농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 지역에 특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도내 21개 시군 27개 마을을 선정하고, 제1기 참가자 145명을 모집해 마을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함평군 해당화체험휴양마을) /전남도청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 3개로 나뉜다. 특히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은 단

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이를 취·창업 기회로 연결한다. 현재 청년 3명이 함평 해당화 마을에서 해당화와 허브를 활용한 화

장품·향수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확인 결과 올해 전국 시·도에서 115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이중 전남이 가장 많은 27개, 경북 20개, 충북·경남 각 16개, 전북 14개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이 가장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지역에 맞는 체험·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월 30만원의 참가 연수비와 함께 1개월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생활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식품안전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광주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감염병 확산 방지 부분 높은 평가

경북도가 올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수상했다.

경북도는 ▲식품안전 기반(감시원수, 교육 등) 3개 ▲기초위생관리(점검, 민원처리, 방역점검 등) 7개 ▲정부 주요정책(수거검사, 이행률) 2개

등 14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명절대비 성수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지역 외식산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방환경개선 및 K-키친 모델개발 등 경북형 K-키친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광역단체 최초로 광역급식관리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해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제3회 광주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일자리박람회는 16일간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행사로, 인터넷 잡코리아와 광주잡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인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을 연계해 일상생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 등 주요 분야의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일까지 광주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17년부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에는 모두 7차례 박람회를 열어 38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김태수 기자